

發刊辭

나라에 史乘이 있어 國家 民族의 形成 發展을 알게 되고 私家에 族譜가 있어 宗族의 根源과 系統을 알게 되는 것이다.

族譜는 始祖 以下로 來歷을 밝히고 系列을 昭明함으로서 敬祖 睦宗의 根本이 되게 하는 것이니 우리나라의 譜制는 王室의 王代 實錄과 璿源錄을 본받아 高麗 中葉부터 發達하였으나 一般的으로는 李朝에 들어와 크게 發展하였다.

우리 延安金氏는 高麗 明宗朝의 大儒 四門博士公을 始祖로 하여 近八百年の 歷史를 가지고 있다. 舊譜에 「系出新羅宗姓이라 初에 兄弟二人이 在國하여 直諫 忤王으로 遊遠地하고 遂除籍하니 兄居 北濱京今、江陵)하고 弟居 鼓塩城(今、延安)하여 因家焉하니」云云이나 年代가 未詳하여 어느 때 定貫된지는 아직 알지 못하고 있다.

우리 族譜는 肅宗四十五年(西紀一、七一九年)에 刊行된 已亥大同譜를 嚆矢로 하여 五次에 걸쳐 重刊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번 에 發刊된 大同系譜는 主로 系列을 昭明하기 위한 것이다. 社會가 發展됨에 따라 大家族主義的 鄉里世居의 因襲이 漸次로 止揚되고 國內外에 걸쳐 移動 分散이 顯著한 이때에 系列을 疏明하는 것은 時下의 要請이라 하겠다. 物質文明이 漸高됨에 따라 道義는 衰頹하고 孝友의 道가 漸漸 消薄해 지는 이때에 昭穆을 밝힘으로서 宗族間에 團合 敦睦하고 爲先 爲宗하는 氣風을 振作하는 契機가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個別事蹟을 具體的으로 記述하자면 큰 分量이 되기 때문에 一般的 便覽을 爲主로 한것은 大部分의 各派에서 派譜를 發刊하고 있기 때문에 이 系譜는 總括的 役割을 하라는 데 그 目的이 있는 것이다.

萬姓의 물도 根柢 하나이고 千가지의 나무도 그 뿌리는 같다 하였거니와 博士公以後 우리의 同族이 南北을 通하여 十萬에 이르고 있으니 부디 和合하여 先祖의 偉德을 追慕 顯彰하고 爲先 爲宗에 힘써서 名門巨族으로서의 傳統을 더욱 빛내야 하겠다. 同姓同本은 百代之親이라 하였으니 서로 親近하고 도와서 더욱 繁榮하도록 힘써야 하겠다.

國土가 分斷된지 於焉 三十有餘年 在北 宗族의 聲息을 알길이 없어 開城府尹公派와 工部典書公派의 南下一部宗族에 限하여 登譜하였을 뿐이니 實로 遺憾千萬이다. 國土의 統一과 더불어 一括修譜의 時機가 오기를 기다릴 뿐이다.

丙辰(一九七六)年四月 日

博士公 二十六世孫

大宗會長 壽 泳 謹識

$$=$$

-14-